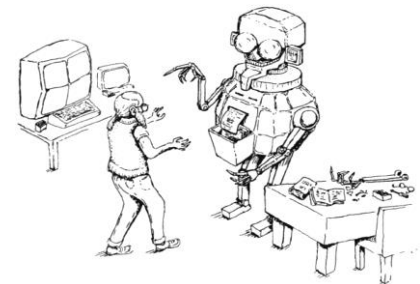


디지털화 시대 플랫폼 노동의 주요 논의와 쟁점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DigitalCapitalism
DIGITALER KAPITALISMUS
ALLE MACHT DEN KONZERNEN
6.-7. November 2016

FRIEDRICH
EBERT
STIFTUNG

[들어가기] 디지털화 시대 주요 일자리 관련 쟁점들

1. 4차 산업혁명 주요 사회현상들

- ✓ **시작** : 4차 산업 문제, 이세돌 vs. 알파고의 세기 대결, 전 사회적 문제 부각
- ✓ **현상** :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전 사회적으로 파급 현상(서적 30%, 특강 및 토론회 등)
- ✓ **통계** : (위기감 인식)국책 연구기관 일자리 감소 고위험 직업군 52% 추정(플레이&오스본 모델 적용)



2. 디지털 노동과 작업방식 변화

- ✓ **영향**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IT 기술 접목 → 산업과 고용 큰 영향(온라인 네트워크 확장) → 작업방식 변화 → ‘디지털, 플랫폼’ 연동 ‘이전과 다른 방식 변화’(자동화, 모듈화)
- ✓ **통제** : 과거 산업화 시기 한 공간(장소)에 모아 놓고 일을 시키는 작업방식에서 새로운 작업방식과 통제 방식으로 변화(제조업 : 사이버물리시스템)



핵심 : 불평등 심화, 비즈니스 모델 연결 이윤 창출
자본 편향적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기

‘플랫폼 노동’의 습격 노동권이 무너진다

10대 배달사장의 비애

대행업체 ‘콜’ 받고 배달하지만
근로계약 아닌 위탁계약 맺어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 분류

온종일 주당 72시간 일하지만
오토바이 유지비 등 자부담
손에 쥘 돈은 한달 100여만원

인천에 사는 17살 김지명(가명)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왔다. 가진 건 스마트폰 한 대밖에 없었던 김군은 “돈을 많이 번 스이다”는 친구의 권유로 오토바이며

플랫폼 노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 고객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탓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특고’로도 일컬음. 배달대행업·대리운전업·우버택시 등이 대표적.

못했다. 2월16일 (한겨레)와 만난 김군은 “일할수록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배달대행업, 대리운전업(카카오드라이버), 기사노동 증가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행정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군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가며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아더 이윤도 7가 그러기조차

2018년 03월 19일 월요일 A18면 IT

대리운전업·배달대행업 ‘플랫폼 노동’ 뜬다

2020년에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특수 고용종사자가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년 후인 2037년에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이 줄어들고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플랫폼 노동’이란 대리운전업·배달대행업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을 뜻한다.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돼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



카카오드라이버 우버

A와의 일자리 경쟁 치열해져
사업장 없이 직접고객 창출하는
특수고용종사자 늘어날 전망

20년 후인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가 4.06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3.85점), ‘트랜스휴먼 보건의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3.77점),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3.57점)등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회현상으로 꼽혔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O2O 확산에 배달대행기사 신종직업 뜬다

<Online to Offline·모바일앱 활용 서비스>

고용직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
스마트앱 통해 서비스대행
플랫폼노동자 급증 추세

배달대행기사 벌써 1만4천명
실적별 수입에 짧은층서 인기
최저임금인상에 사업자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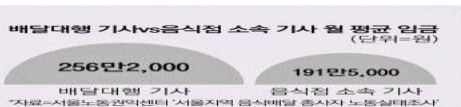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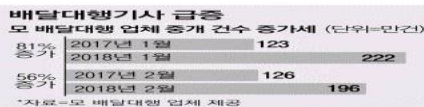
오토바이 운전 경력 7년의 배달기사 A씨의 일과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집을 나서며 기사용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다. 앱에 뜬 기사가 응급급의 배달 요청을 터치하고 골짜 음식점을 가지러 간다.

운전 중에도 새롭게 뜨는 앱을 확인하느라 바쁘다. 가까운 곳에 함께 ‘우어갈’ 곳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근처 치킨집에서 밥이 뜨자 골짜 터치해 찾아간다.

A씨의 배달기방에는 자장면과 치킨이 함께 들어갔다. 주문 날씨가 배달이 많아지는 겨울철엔 밥 11시까지 일하며 해결한 밥이 70개에 달한다. 건달 받는 금액은 3000원대 초반으로 하루 2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월 주유비 20만원, 오토바이 리스비 50만원, 보험료, 식비 등을 제하고 400만원 이상을 번다.

O2O(Online to Offline)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배달대행 기사’라는 신종 직업이 뜨고 있다. 전통적 배달기사가 특경 음식점·점포 등에 소속돼 해당 상품의 제육만 배달했던 것과 달리 배달대행 기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업종·점포의 다양한 상품을 대환 수요를 잡으며 이를 배달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수요와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배달기사의 이해관계가 모바일 앱이란 연결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 이어지는 모양새다. 배달기사 입장에선 일한 성과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서선 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활동하는 배달대행 기사는 약 1만4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배달대행 업체들에 등록된 기사는 약 5만5000명으로 추산되지만 여러 업체에 중복 등록된 기사가 있어 존재하고 활동하지 않는 기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2014년 안전근로공단과 근로환경조사 결과 전체 음식점 배달기사가 8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전체 음식점 배달기사의 약 18%가 배달대행 기사로 변신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한 배달대행 업체는 올해 1월과 2월에 증가한 배

달대행 건수가 각각 222만건과 196만건으로 지난해 동월 123만건, 126만건 대비 각각 81%, 56% 증가했다.

배달음식점들은 과거엔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일하는 3년 경력의 배달기사 D씨는 오전 11시에 매장으로 출근해 청소와 피자박스만들기 등을 도우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점심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에 나서 주문이 밀리는 시간에는 시간당 평균 3~4건, 주문이 없는 시간에는 1~2건 정도를 처리한다. 밤 11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며 매달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바라고’ ‘부름’ ‘생각대로’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이 다수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음식점들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하게 됐다.

배달기사들은 배달대행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배달 건당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한다. 음식점의 배달 노동력 수요와 기사의 배달 능력 공급을 잇는 플랫폼이 배달대행 업체이고 이 같은 의미에서 배달대행 기사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른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던 기존 노동자들과는 달리 ‘개인사업자’ 형태로 기사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 대리운전 기사, 기사도우미 등도 비슷한 형태의 근무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정규직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4대 보험 의무 등을 지느니 차라리 다

소 비싸더라도 배달대행 서비스를 쓰겠다는 사업주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가속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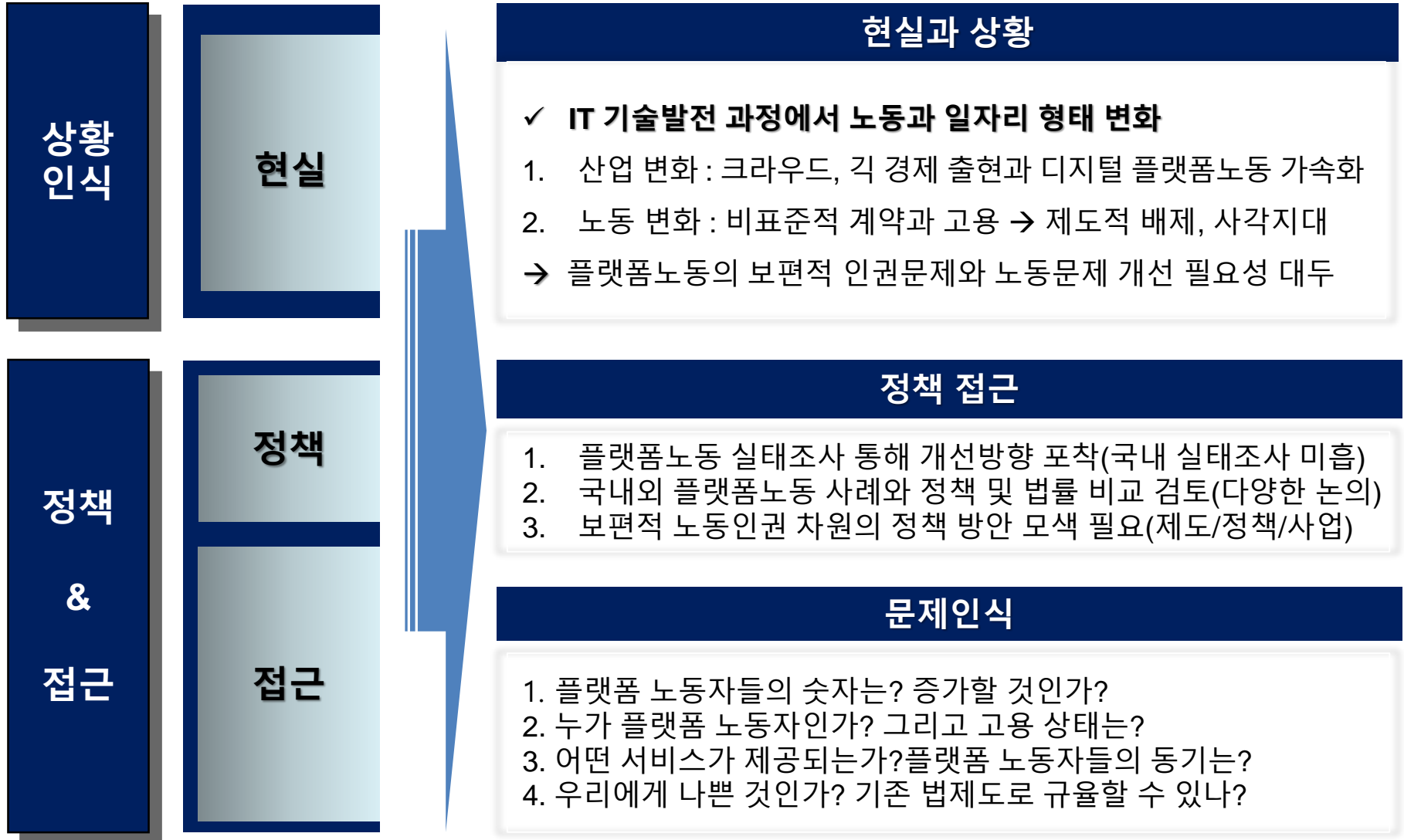
1만6000여명짜리 배달 한 마리 배달에 건달 2000~3000원씩 지불하는 게 업무임대에선 큰 부원이지만 고용노동위원회 단속 등에 시달리고 벌금을 무느니 차라리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인건비 고정 지출을 고용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행용 ‘쓰레기단속’제안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O2O 서비스 시장이 2014년 1조1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8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4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2014년 1억5000만달러에서 2020년 756억4000만달러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잠재적 플랫폼 노동자도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27만명에 달한다. O2O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노동 환경에도 큰 변화가 닥칠 전망이다.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일한 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근로 시간이 유연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하루에 40분 정도만 수행하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돼)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사장 돈을 안 봐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배달이 많은 겨울에는 하루 평균 60분 정도를 하는 데 월 주유비 20만원, 오토바이 리스비 50만원, 보험료, 식비 등을 빼도 350만~400만원을 번다”고 전했다.

이씨는 “내가 원하는 때 앱을 켜서 일을 하고 킨디어치 안 좋은 날에는 일을 켜지거나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편하다”며 “매장에 매어 배달 이외에 청소나 주방일을 하거나 사장의 농성을 볼 일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30대 젊은 층은 배달대행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1-1. 디지털 플랫폼 노동 문제..?



1-2 디지털 플랫폼노동 정의, 논의 - 정의, 규정, 검토

플랫폼 노동의 출발, 정의

1. '긱 경제'(Gig economy),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제공하고 보수(payment) 받는 일자리’

- ① 클라우드 워크(온라인 노동) : 온라인 수행 여러 작업(IT, 회계)
- ② 긱 노동(오프라인 노동) : 호출형 플랫폼 노동(청소, 배달)

2. 종속된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s) 문제

- ① 플랫폼 노동자 : 플랫폼에 종속
 - ② 전통적 독립 노동자 : 1-2개 사업체에 경제적, 사용적 종속
- 어소시에이트(associates), 파트너(partners), 제공자(providers), 독립계약자, 프리랜서화

플랫폼노동의 국내 선행연구

1. 첫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에서 플랫폼 노동 개념과 정의, 유형, 문제점 및 개선 방안들 제시
2. 둘째, 주요 국가별로 디지털화와 플랫폼 노동 관련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준비 진행(*법률: 프랑스, *정책과 협약 : 독일 산업4.0, 노동4.0)
3. 셋째, 국내 국책연구기관에서 ‘기술발전과 변화’,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제한적 논의
4. 넷째, 일부 업종(배달업) 대상 실태조사 → ‘18년 고용정보원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19년 발표 예정), ‘18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가사서비스), ‘19년 노동부 배달대행 실태조사(실태&산재보험) 등 제한적 연구 진행

2-1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디지털화 검토 현황

독일

산업 4.0(Industrie 4.0)

디지털 어젠다 2014-2017(Digital Agenda 2014-2017)

프랑스

미래의 공장(Usines du future)

디지털화와 노동(Transformation numérique et vie au travail)

영국

혁신 영국 (Innovate UK) -2015-2018 디지털 경제 전략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

덴마크

메뉴팩처링 아카데미(Manufacturing Academy)

핀란드

산업 인터넷 비즈니스 혁명 (Industrial Internet Business
Revolution)

오스트리아

미래의 생산(Produktion der Zukunft)

벨기에

디지털 벨기에(Digital Belgium)

메이드 디퍼런트(Made different); 미래의 공장 4.0(Factory of
the Future 4.0)

네덜란드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로봇을 정복하라(De robot de baas - Mastering the robot)'

룩셈부르크

디지털 룩셈부르크 (Digital Lëtzebuerg)

이탈리아

지능화공장(Fabbrica Intelligente)

디지털 기술로부터의 성장(Growth from digital technology)

스페인

산업부문 강화를 위한 어젠다 (Agenda para el fortalecimiento
del sector industrial)

폴란드

프로듀테크(Produtech)

6-2. '4차 산업'과 '디지털화' 현상 다양한 접근법

Was ist Industrie 4.0?



산업4.0 모델 혁신과 특징

- ① 대량맞춤화 : 3D 프린트
- ② 사물인터넷(IoT)
- ③ 자율로봇 : 빅데이터 학습 로봇
- ④ 분산된 생산 네트워크
- ⑤ 가치사슬의 분절화(fragmentation) → 오프-쇼어링
- ⑥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 모호



산업4.0 접근법과 의견 차이

[전통적 시각]

- ✓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다 (Frey & Osborne, 2015)

[새로운 시각]

- ✓ 로봇과 함께 노동을 배워야 한다 (Brynjolfsson & McAfee, 2015)

네덜란드 '포용적 로봇'(inclusive robotics) 정부 보고서 아젠더

- ① 공동창작 : 기술 설계자와 사용자 협력 혁신전략
- ② 교육모델 : 지식과 기술 부문 우선 → 반드시 인간 영역 남아야 할 작업, 관계, 책임 집중
- ③ 노동자 자율성 : 자율성과 통제력 유지 방법
- ④ 사회적 분열 방지 : 변방으로 내몰릴 노동자 그룹 식별

[사례] 독일 4차 산업과 노동 4.0 문제

**1차
산업
혁명**

1760 - 1840
증기기관
생산&노동 기계화

**노동
1.0**

18세기 후반
노조 건설

**2차
산업
혁명**

19세기 말
공장 대량생산
소비증가

**노동
2.0**

계급타협
정당건설
복지국가

**3차
산업
혁명**

1960년대 이후
컴퓨터, PC
자동화

**노동
3.0**

글로벌화
사회적 경제

**4차
산업
혁명**

2010년대 이후
ICT, CPS, AI
사물인터넷

**노동
4.0**

기술혁신
+
사회협약
노동 개입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Vereinte
Dienstleistungs-
gewerkschaft**

Dienstleistungen 4.0 - mit Digitalisierung Dienstleistungen zukunftsfähig machen

Berlin, 28. April 2015

Gemeinsame Erklärung

Der Dienstleistungssektor ist der bedeutendste Wirtschaftsbereich in Deutschland. Mit einem Anteil von fast 70 Prozent an der Gesamtwertschöpfung und 75 Prozent an der Gesamtbeschäftigung leistet er den größten Beitrag zu Wohlstand und Beschäftigung in Deutschland. Mit rund drei Vierteln aller Unternehmen stellt die Dienstleistungswirtschaft den größten Anteil an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Im März 2015 hat das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e Unternehmen der Dienstleistungswirtschaft nach den aktuell wichtigsten Her-

2-2.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작업방식- 디지털화, 플랫폼화

새로운 세계 경제, 빅데이터, 새로운 기업 형태와 경영

- ✓ 변화 배경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증가
- ✓ 용어 다양 : 디지털 경제, 협력 경제, 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 규모 추정 어려움, 해석 다양
- ✓ 문제 의식 : 단순 새로운 디지털 경제 대비 교육, 기술/자격 투자 아닌, 새로운 노동세계 진입 과정
- ✓ 변화 형태 : 디지털 위협 → 데이터 가치 창출, 확보 경제(바퀴 달린 컴퓨터), 경영 변화 초래

노동 없는 기계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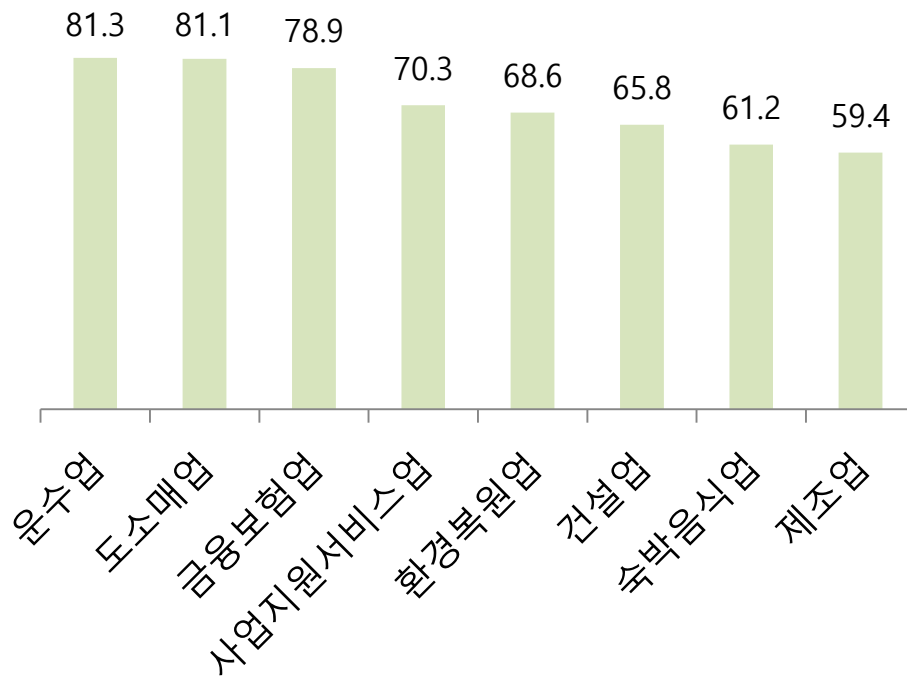
- 아마존 실험들, 아마존 고(go), 바(bar), 북(book)..



2-3. 국내외 디지털화와 일자리 감소 고위험 직업군 논쟁

한국 디지털화 시대 일자리 상실 고위험 업종

- ✓ 향후 10~20년 내 컴퓨터로 대체될 인간의 일자리 수 추정(%)
- ✓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 52%(12,434개) 대체될 것으로 파악



분석 : Frey & Osborne(2017) 모델 적용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8)

자동화로 사라질 일자리들(오스트레일리아)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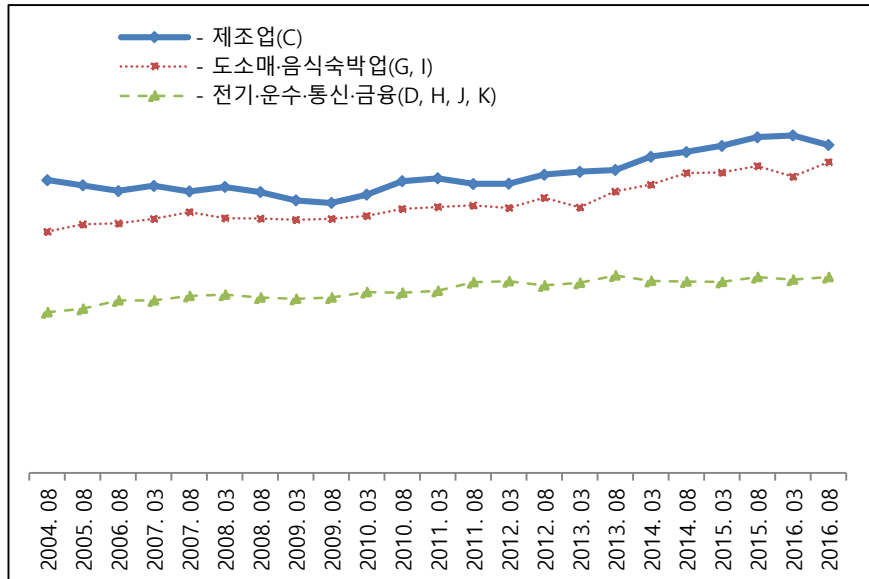


2-4. 한국 취업자, 임노동자 규모 추이 변화?

4차 산업혁명? 산업별 취업자 추이

- ✓ 도소매숙박음식 : 10년 사이 829천명 증가
- ✓ 서비스판매직 : 10년 사이 901천명 증가

[그림1] 산업별 취업자(임금노동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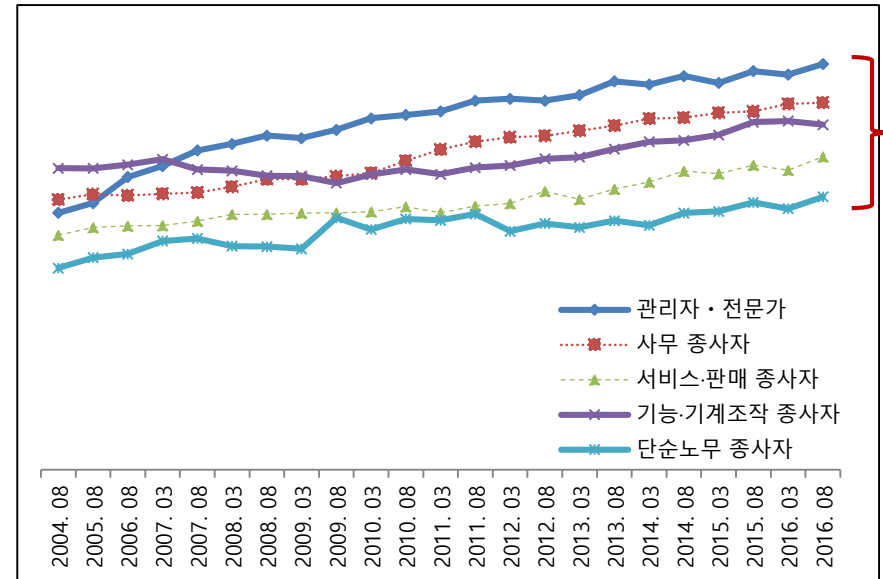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연도별 원자료

- ✓ 제조업 : 2004년 3,496천명 → 2016년 3,913천명
- ✓ 도소매음식숙박업 : 2004년 2,880천명 → 2016년 3,709천명
- ✓ 전기운수통신금융 : 2004년 1,917천명 → 2016년 2,339천명

4차 산업혁명? 직업별 취업자 추이

- ✓ 관리전문직 : 10년 사이 1,709천명 증가
- ✓ 사무직 : 10년 사이 1,114천명 증가

[그림2] 직업별 취업자(임금노동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연도별 원자료

- ✓ 관리전문직 : 2004년 2,951천명 → 2016년 4,660천명
- ✓ 사무직 : 2004년 3,103천명 → 2016년 4,217천명
- ✓ 서비스 판매직 : 2004년 2,694천명 → 2016년 3,595천명
- ✓ 기능기계조작직 : 2004년 3,464천명 → 2016년 3,965천명
- ✓ 단순노무직 : 2004년 2,318천명 → 2016년 3,136천명

3-1. 디지털 경제 시대, 작업장 디지털화 노동 수단 - KLSI

주요 서비스업 노동의 디지털화

1,2순위 합계	응답(N)	비율(%)
1)전자 통신 매체 (예: 이메일, 스마트폰, SNS)	1,774	62.9%
2)컴퓨터 제어 기계 또는 로봇 활용 작업	231	8.2%
3)소프트웨어 제어 작업과정 (예: 루틴설계, 제품설계 또는 스케줄)	167	5.9%
4)전자 지원 기기 사용 업무 (예: 스캐너, 데이터 안경 및 의료 진단 기기)	341	12.1%
5)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사람과 공동프로젝트 작업	268	9.5%
6)기타	39	1.4%

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8)주요서비스업 1,918명 응답결과

주요 서비스업 디지털 업무 분포

1순위		전자 통신 매체	컴퓨터 /로봇 제어	소프트 웨어 작업	전자 지원 기기	인터넷 활용 공동 작업	기타
성별	여성	86.0	3.6	1.6	5.1	2.7	1.0
	남성	84.3	3.6	3.6	2.6	4.1	1.8
고용 형태	정규직	87.1	3.1	2.1	3.8	2.8	1.1
	비정규직	78.9	5.9	.9	8.7	3.7	1.9
근무 형태	전일제	87.7	2.7	1.4	4.4	2.6	1.2
	교대제등	80.7	6.2	3.2	4.7	3.8	1.5

*소프트웨어작업예:루틴설계,제품설계또는스케줄

*전자지원기기에스캐너,데이터안경및의료진단기기

3-2. 한국 서비스노동자 신기술 도입 인식 - KLSI

[질문]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가 대체 · 감소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여성, 중고령자, 무기계약직, 대면업무(유통, 영업점) 종사자 일자리 위기감 강함

유통, 호텔, 레저 노동자(2018.5-6, n=2,246)

구분	점수	구분	점수
유통	3.84	20대	3.57
관광호텔	3.19	30대	3.81
레저	3.12	40대	3.77
전일제 근무자	3.75	50대이상	3.95
교대제 근무자	3.78	정규직	3.77
주말/야간전담 근무	3.43	무기계약직	3.80
여성	3.90	직접고용비정규직	3.21
남성	3.30	평균	3.77

금융은행 노동자(2018.5-6, n=18,036)

구분	점수	구분	점수
20대	3.50	여성	3.64
30대	3.50	남성	3.42
40대	3.59	영업점 개인 대면업무	3.76
50대 이상	3.54	영업점 기업 대면업무	3.48
정규직	3.52	은행 콜센터	3.39
무기계약직	3.63	은행 본부 부서	3.11
직접고용 비정규직	3.23	평균	3.53

* 설문조사 5점 척도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일자리 대체감소 걱정이 높은 것으로 해석

3-3. 디지털 경제 시대, 작업장 디지털화와 노동 변화- KLSI

주요 서비스업 작업장내 노동의 디지털화 - 6가지 특징

	더 많아졌다	그대 로다	더 적어졌다
1) 디지털화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작업부담)이____	21.8% (431)	69.1% (1,367)	9.1% (181)
2) 디지털화와 업무량이____	25.1% (494)	68.9% (1,353)	6.0% (118)
3) 디지털화의 결과로 동시에 처리해야할 업무량이 전에 비해____	14.5% (330)	20.1% (458)	58.5% (1,335)
4) 디지털화의 결과로 업무에 대한 당신의 의사결정권 범위가 전에 비해____	10.8% (211)	78.1% (1,519)	11.1% (216)
5) 디지털화를 통한 재택 또는 이동 중 해야 하는 노동 비율은 이전에 비해____	16.8% (324)	76.8% (1,485)	6.5% (125)
6) 디지털화 결과로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전에 비해____	25.6% (497)	70.3% (1,364)	4.0% (78)

주 : **디지털화**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 사용, 테블릿 · 스마트폰 · 스캐너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인공지능 도입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8), 주요서비스업 2037명 응답결과

4-1.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화 현상 - 국내외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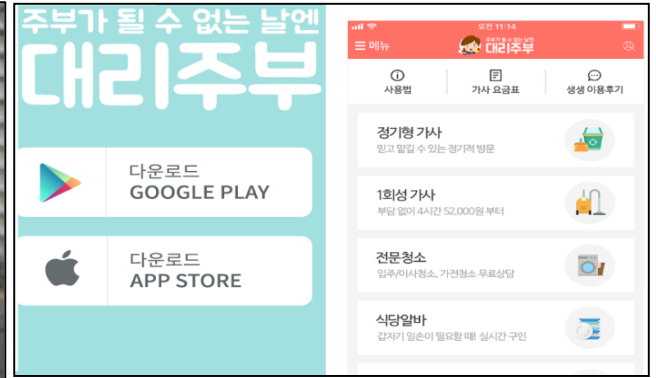
해외 업체	구분	한국 유사 업체	세부 내용
Lyft	택시	쏘카의 타다	우버와 유사한 카쉐어링 택시서비스 제공
InstaCart	장보기	마켓컬리 (*쿠팡 플렉스)	고객이 원하는 신선식품 등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쇼핑대행서비스 제공
Handy	가사노동 생활서비스	데일리더홈 대리주부	집안 청소부터 가구조립, 실내 페인팅, TV 설치, 에어컨 설치, 전구교체 등 각종 가사·수리 서비스
TaskRabbit	심부름	땡동 일당백	지역 내 인력 매칭 플랫폼, 청소, 이사, 배달, 출시일에 맞추어 매장에서 줄 서기, 각종 수리 서비스 등 제공
DoorDash	음식배달	요기요 배달의 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 내 유명 식당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제공
Luxe	발레파킹	제이앤티컴퍼니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 대행 서비스 제공
DogVacay	펫시터	펫닥 페팸	반려동물 돌봐주는 펫시터 연결 플랫폼 서비스
Fiverr	전문가	위시켓	음악, 그래픽, 번역, 비디오 편집, 디자인, 이력서 첨삭, 웹분석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서비스 제공
Quicklegal	법무	Rocket Lawyer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변호사 연결
HourlyNerd	컨설팅	크몽	각 분야별 독립 전문 컨설턴트 연결 컨설팅 서비스



한국 '푸드 플라이'



영국 '딜리버루(Deliveroo)



가서비스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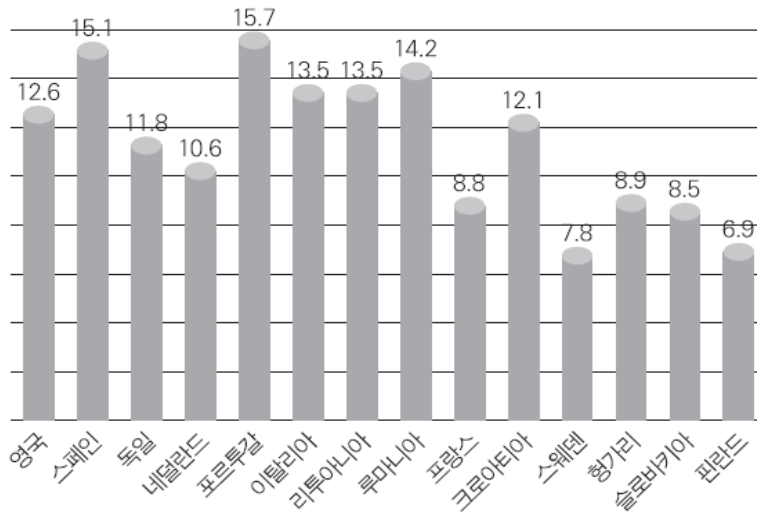


4-2. 산업과 경영의 디지털 플랫폼화 - 노동시장 영향?

새로운 경제, 기업 형태와 경영 - 디지털화와 플랫폼노동

- ✓ 일자리 창출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증가
 - *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프레이 & 오스본, 2015)
- ✓ 업무의 변화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조직 운영
- ✓ 일자리 변화 :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소싱, ‘공유’ 경제 → ‘디지털 부딪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유럽 플랫폼 노동 참여자 비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7)

자동화/디지털화 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	자동화/디지털화 될 가능성이 적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사무직	교육, 예술, 미디어	'초고속연직'
판매직	법률 서비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마이너, 데이터 설계사
운송, 물류	경영, 인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자
제조업	사업	네트워킹, 인공지능 등 전문가
건축업	일부 금융서비스업	새로운 지능형 기계, 로봇, 3D 프린터 설계자 및 생산자
일부 금융서비스업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디지털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일부 서비스 업(번역, 세금, 컨설팅 등)	컴퓨터 관련직, 엔지니어, 과학자	'초저속연직'
	일부 서비스업 (사회복지업무, 미용사, 미용 등)	디지털 '갤러션 노예'(데이터 입력 또는 필터링 작업자)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메커니컬 터크(Mechanical Turks)'(아래 참조)
		우버 운전기사, '협력적' 경제에서의 임시직(수리, 주거개선, 애완동물 돌보기 등)

자료 : ETUI(2016)

4-3. 디지털 플랫폼 노동 - 기존 산업 플랫폼화

플랫폼 노동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결합 (O2O 결합)

- ✓ 현상 : 사회경제, 산업구조 변화+기술발전 → 일의 방식 해체 →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관계
- ✓ 쟁점 : 노동자 법적지위 상실(노동의 사각지대, 사회적 배제), 기존 노사관계 & 산업안전 무의미

東亞日報

2019년 05월 01일 수요일 B04면 경제 금융

美노동부 “공유경제 노동자, 종업원 아닌 자영업자”

신분 놓고 뜨거운 논란 예고

“플랫폼 통해 소비자 위해 일해”
우버 등 관련업종 파장 클 듯

계약, 최저임금 등 부담없어져 환영
노동계 “플랫폼회사에 면죄부” 반발

- 미국 노동부가 ‘공유경제 노동자’를 계약자로 판단한 주요 근거
 -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마련한다.
 - 회사가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 노동자들이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 유지, 운영하지 않는다.
 - 회사가 기본 비용을 제시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보수를 협상할 여지가 있다.
 - 노동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고객과 추가 일감을 예약할 수 있다. 자료: 뉴욕타임스(NYT)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는 종업원인가, 개별 사업자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라는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미 재정은 ‘투자자 고용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노동단체는 “공유경제 회사들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공유경제 노동자’ 신분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공유경제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
미 노동부가 4월 28일(현지 시간) 의견서(Opinion letter)를 통해 핸디(Handy), 엔지스트리스트(Angie’s list)와 유사한 형태의 스타

트론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일거리를 구하려는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이 플랫폼의 종업원 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웰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해당 질의를 한 공유경제 회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승차 공유회사 우버나 리프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의령의 가상시장(virtual market place)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고용된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종업원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938년 만들어진 FLSA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 노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 신분을 결정할 때 고용주의 노동자 업무 통제 정도, 회사 사업

에서 노동자 업무의 중요도 등을 따지는 ‘6가지 테스트(6 factor test)’를 적용한다. 의견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가상시장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을 위해 일한다”며 독립 계약자로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유경제)업체는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면 노동비가 20~30%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회사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회보장 세금 등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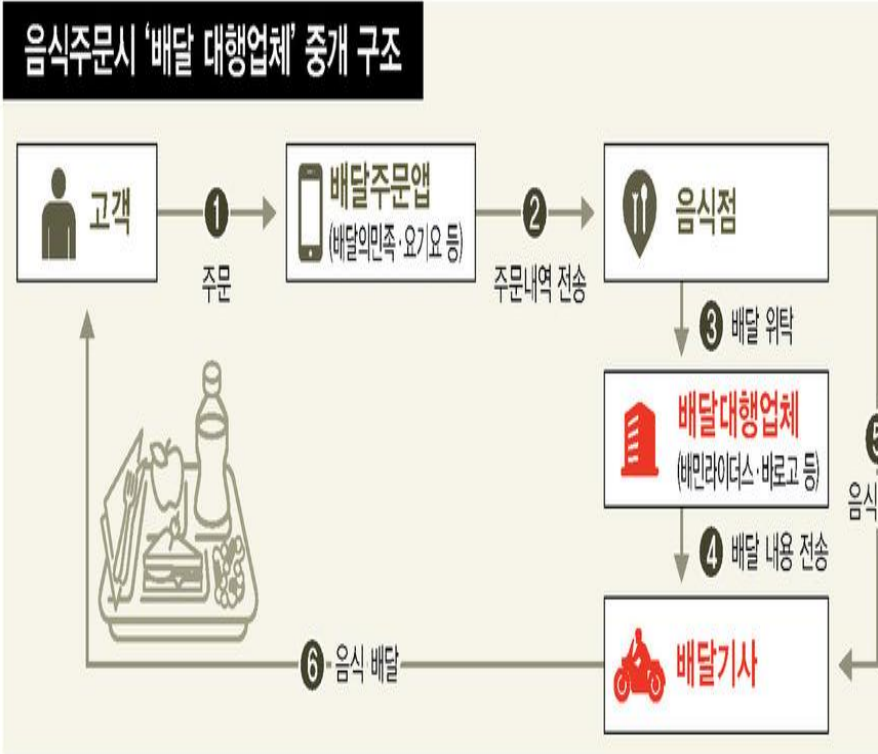
● 우버 기사 신분 논란 등 거세질 듯
이 의견서는 다른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것은 우버 기사 등 다른

공유경제 노동자의 신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NYT는 “공유경제 회사(Gig company)들에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답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노동 문제의 경이 중요 정부의 접근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오바마 전 행정부는 우버 운전기사 등 ‘공유경제 노동자(Gig worker)’들이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노동부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중에 우버 기사 등을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는 절차적 근거로 어떤 서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5월 상정을 추진하는 우버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슷한 유권해석을 기대하며 질의를 할 수도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가 모호한 공유경제 확산을 우려하는 노동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의 캐서린 러켈스하우스 사무총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회사가 이 서면을 소송 등에서 노동자들을 계약자로 성립하게 대했고 그 주장하는 ‘면죄부(get out of jail free card)’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4-4. 한국 플랫폼경제 종사자규모 추정

한국 플랫폼 노동 규모 추정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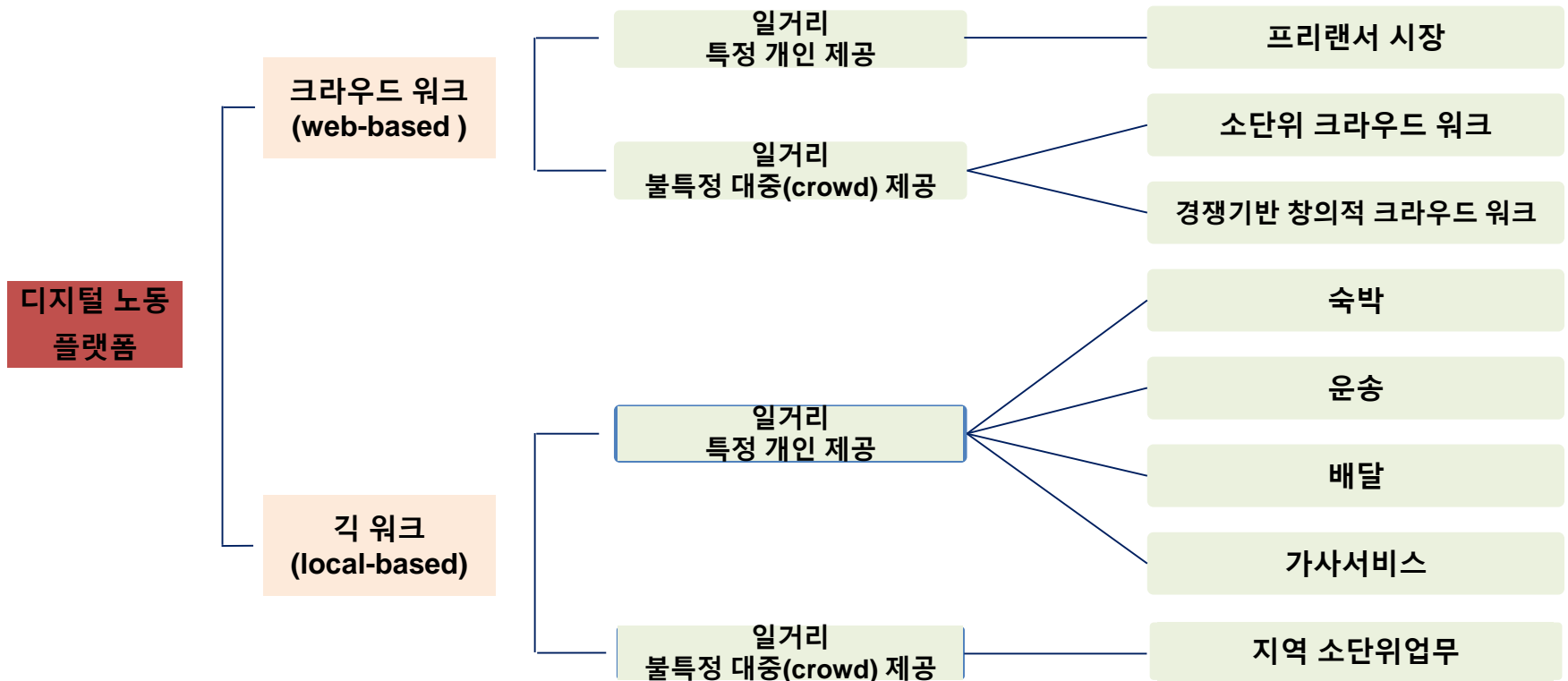
규모 : '협의' 43만9천명 vs. '광의' 53만 8천명 → web 기반 플랫폼 종사자 다수 누락

속성 : 수도권 59.2%(서울 24.5%, 경인 34.7%) → 남성 66.7%, 50대 이상 51.2%(15-29세 11.2%)

	남자		여자	
	직업	취업자 비율	직업	취업자 비율
1	대리운전	26.0	음식점보조,서빙	23.1
2	화물운송	15.6	가사육아도우미	17.4
3	택시운전	8.9	요양의료	14.0
4	판매,영업	6.5	청소,건물관리	10.9
5	청소,건물관리	5.9	판매,영업	10.0
6	다양한 단순노무	5.7	화물운송	4.1
7	음식배달	5.0	통번역	4.2
8	퀵서비스	3.7	대리운전	2.9
9	음식점보조,서빙	2.7	사무지원	2.1
10	교육,강사	2.4	음식배달	1.9

4-5. 플랫폼노동 유형화 논의 - 국제노동기구(ILO, 2018)

국제노동기구 - 플랫폼노동 8가지 유형화



유럽연합(EU) : 투자한 시간과 수입의 비율 3가지 구분 → Platform work

- 1)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PeoplePerHour, Freelancer, Upwork 등)
- 2) microwork 플랫폼(Amazon Mechanical Turk, CrowdFlower)
- 3) 물리적 서비스 연결 플랫폼(Uber, TaskRabbit 등)

4-6. 국제노동기구(ILO) 및 주요 대응 상황- 고민 흔적

1. 국제노동기구(ILO) 논의 - 100주년 기념 보고서 『더 나은 일의 미래』(2019.1.29)

<개인역량강화 위한 투자확대>	<일과 관련 제도 대한 투자 확대>	<괜찮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투자확대>
1. 보편적인 평생학습권 인정 2. 일의 전환 대응 위한 지원 3. 성평등을 위한 수단 시행 4. 출생부터 노년까지 사회적보호를 위한 보편적 조치 보장	5. 적정 생활임금 노동시간 제한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6. 노동시간선택권 - 일생활균형 등을 위한 시간주권 확대 7. 공공정책을 통한 노동자·사용자 대표권 및 사회적 대화 증진 8. <u>좋은 일자리 지원 위한 기술활용</u>	9. 괜찮은 지속가능한 일 관련 핵심영역에의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0. 기업의 장기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개편

[8번 의제] 기술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에 대한 “**인간주도**” 접근법을 촉구한다.

디지털 기술은 노동보호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하지만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다양한 관할권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1)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많은 플랫폼 노동은 (2)보수가 낮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3)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플랫폼 노동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5)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 하고 (6)디지털 플랫폼(및 고객)이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2. 유럽연합(EU) 논의

- 선택된 플랫폼노동의 고용 및 노동조건 보고서(2018)
- 6개국 노동현황, 보호 법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

3. 주요 EU 회원 국가 대응

- 1) 프랑스 : 2016년 노동법(사회책임, 권리)
- 2) 독 일 : 노동4.0과 사회적 논의

4-7. 플랫폼노동 유형화 논의 - 유럽연합(EU, 2018)

1. EU의 플랫폼노동 유형화(ILO 2017 유형 세분화)

- ① 지역 기반 이용자 결정형 일상업무(on-location client-determined routine work)
- ② 지역 기반 플랫폼 결정형 일상업무(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 ③ 지역 기반 이용자 결정형 기술업무(on-location client-determined moderately skilled work)
- ④ 지역 기반 노동자 주도형 기술업무(on-location worker-initiated moderately skilled work)
- ⑤ 지역 기반 이용자 결정형 고기술업무(on-location client-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 ⑥ 지역 기반 플랫폼 결정형 고기술업무(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 ⑦ 온라인 기반 클릭업무(online moderately skilled click-work)
- ⑧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결정형 고기술업무(online platform-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 ⑨ 온라인 기반 이용자 결정형 전문가업무(online client-determined specialist work)
- ⑩ 온라인 경쟁형 전문가 업무(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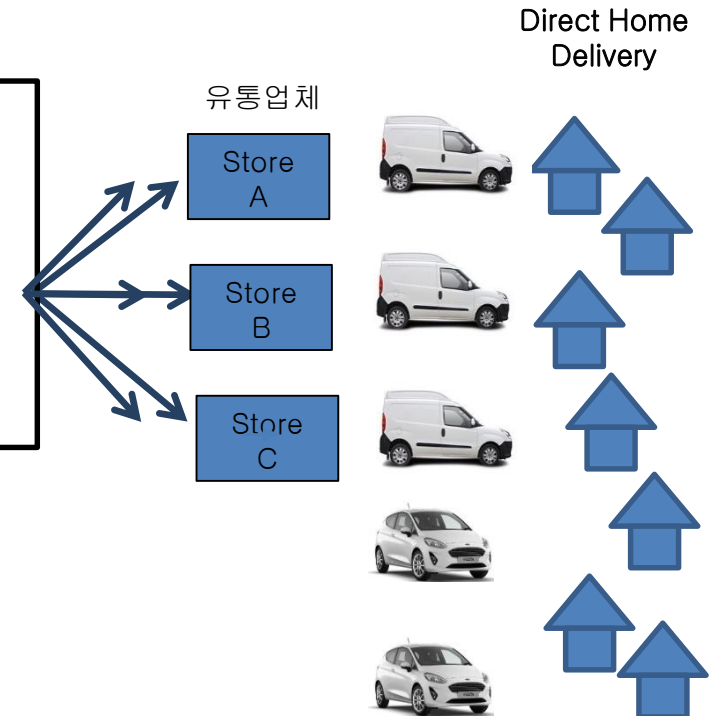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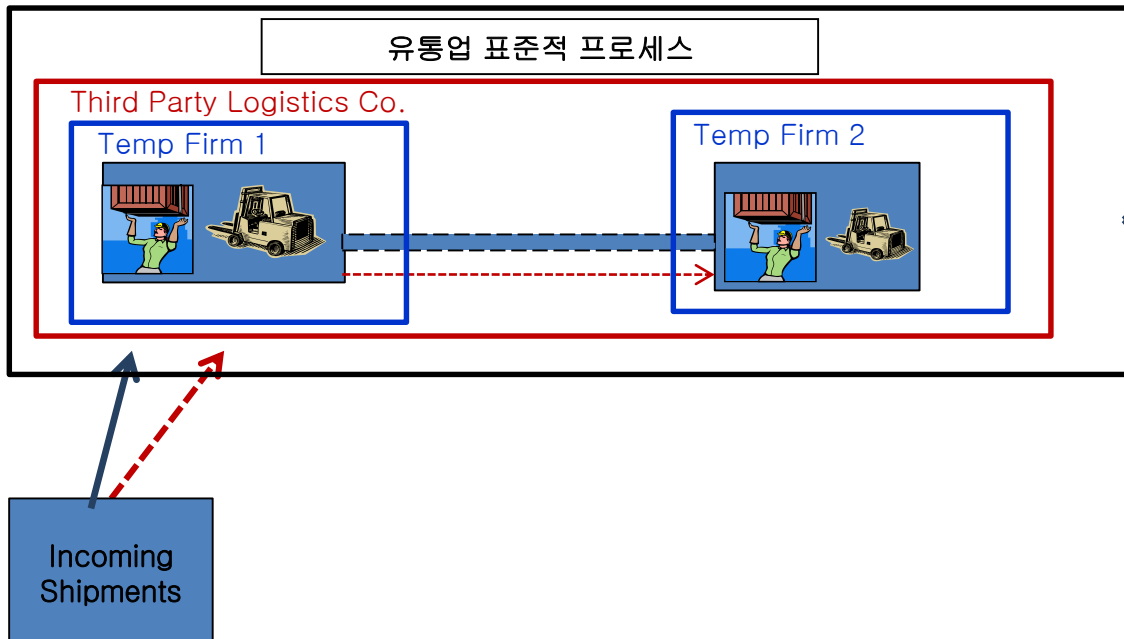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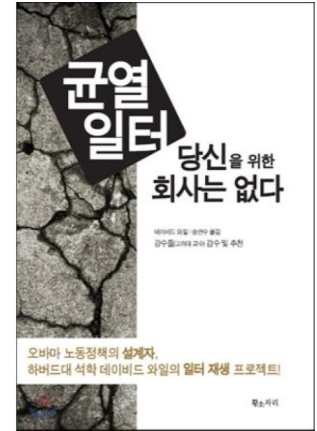
2. 국내외 플랫폼노동 유형화 도식(한국, 장지연 2017 수정)

노동방식	서비스 유형	외국 사례	국내 사례
노동서비스 플랫폼	전문가	Upwork, Freelancer.com	Rocket Lawyer , 위시켓, 크몽
	심부름, 돌봄대행	TaskRabbit, Care.com	땡동, 다방, 직방, 데일리더홈
	운전	Uber, Lyft	카카오 대리
	음식배달	Deliveroo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세탁	FlyCleaners	백의민족
	애완견 돌보기	DogVacay	펫닥, 페팸
물건 팔기 플랫폼		eBay	11번가, 쿠팡, 옥션, 인터파크, 이메프
자산임대 플랫폼		Airbnb, SnappCar, Lending Club	이지램스,

5-1. 자본주의 노동 파편화 - 균열 일터 The Fissured Workplace

고용털어버리기 shedding employment

- ✓ 계약직, 하청
 - ✓ 프랜차이징, 아웃소싱
-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 - 플랫폼노동



5-2. 디지털화와 산업정보 기술의 현장 적용 방식



Spring



Summer



Fall



Winter

2020
year

50

50

- ✓ 상품 제고 zero
- ✓ 2020 년도 제품 판매량 결정
- ✓ 주체 : PC + ToI + 인공지능 AI



2019
year

50

100

- ✓ 상품 제고 발생
- ✓ 차기 년도 제품 판매량 결정
- ✓ 주체 : 사람(people)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5-3. 디지털 플랫폼 노동 유형 -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화

플랫폼 노동 - IT 정보기술의 발전과 작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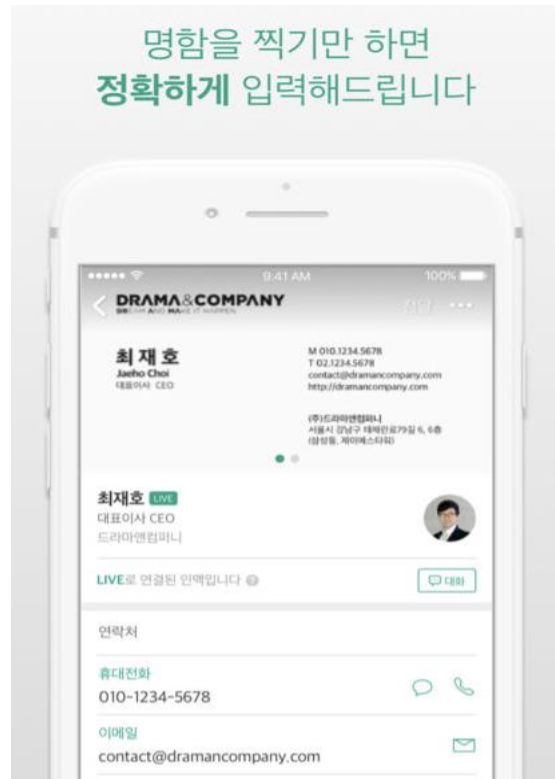
- ✓ 현상 : 일상의 필요한 서비스 → 정보기술 활용 → 플랫폼 통한 서비스 제공 (8천명)
- ✓ 노동 : 개별 노동자 → 개인 사업자 계약 → 집 재택 근무 → 명함 스캔 내용 타이핑(1건당 실적)



리멤버 - 국민 명함앱

촬영 한번으로 명함을 관리하세요

받기



6-1.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대응

- ✓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 ✓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ce liberal professions)

➤ 국가 플랫폼 노동 규제 논의, 접근

국가	규제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공급자 노동자 vs. 독립계약자 vs. 제3의 분류 · 과제 규제 대상 논의(오프라인, 온라인) · 기존 서비스공급자 vs. 온라인서비스 공급자 규제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규제(2016.1), 지방 당국 허가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규제(2016), 온라인 업체 세금 부과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규제(2014), 온라인 업체 허가 등록 요건화(우버 중단)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 규제(2014), 이용기간 제한, 세금 부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 긍정적 지원(2015), 노동자 기술 불이익 금지, 세금 부과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 협의체 발족, 공유경제 제도 개선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결제 활성화, 우호적 판결(2015), 근로자 인정(2015, 런던)

[참조] 디지털화와 플랫폼 노동의 대응 - '디지털 과세' 논의 시작 (EU)

朝鮮日報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B05면 경제종합

EU, 사람 차별 사례 증가... AI 윤리규범 발표

일상생활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윤리규범이 나왔다.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공정성을 지키고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 4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들과 마주할 시가 지켜야 할 원칙들로 유럽 각국의 전문가 52명이 만들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으라는 것이다. 시가 사람의 자율성을 깰까 봐선 안 되고 AI의 모든 결정에 사람이 감독,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 견고·안

전성이다. AI는 안전하고 정확하며, 외부 공격에 쉽게 손상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I의 결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명성, 연령·성별·인종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다양성·공정성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이 밖에 지속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내부 감사(監査)를 통해 AI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 조항도 포함됐다.

이런 윤리조항을 만든 이유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실제로 인종, 성(性) 차별을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구글 AI는 흑인 사면을 고릴라로 인식했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챗봇은 히틀러를 옹호하고



인종 차별과 성적인 발언을 연달아 내는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고 남성만 뽑아 내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아마존이 지난해 개발한 AI 채용 프로그램도 했다.

방통위

박순찬 기자

로봇에 세금 물리고, 기본소득 도입하자 (팀 단롭)

인공지능(AI)이 '장밋빛 미래' 보장할까? 거대 기술기업이 지배하는 세상, 다수 직업 사라지며 불행해질 수도...

뉴스토마토

2019년 05월 02일 목요일 015면 비즈

라이더유니온 “‘플랫폼세’ 도입” 주장

라이더 노조 정식 출범 플랫폼사 “소통·복지 이미 완비”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정식으로 출범하며 플랫폼 회사의 책임 부담 의무를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 오토바이 행진'을 열고 라이더유니온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노동자는 제대로 이야기할 권리조차 없었다”며 “노동조합 출범으로 플랫폼 기업을 대항 태이불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토바이 행진과 함께 정부와 플랫폼 회사를 향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스피드배달을 통한 산재·유급휴일·휴업수당 보장 △경부·기업·라이더유니온 3자 단계 교섭 등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소비자주권캠페인, 배달대행플랫폼 등 기업들이 라이더 노동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 오토바이 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라이더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주행 중 끝을 잡지 못하게 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에 이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과 배달로 인화 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인 메쉬

코리아는 카카오톡 채널 '부릉 그린센터'를 운영 중이며 바로고도 라이더 전용 보험 등을 출시했다. 한 배달대행플랫폼 관계자는 “라이더 풀 수행을 막는 고용부 안은 라이더 수익 감소와 배달요청 상점의 비용을 늘릴 것”이라며 “고용부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stomato.com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면 '일'은 좀더 나은 삶을 위한 것, 정부는 '일의 윤리' 재정립하고 로봇세·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

6-3. 국내외 플랫폼노동 주요 법률적 분쟁, 단협 - 국가, 지역별 차이

1. 주요 국가 플랫폼노동 분쟁 및 갈등 사례

	분쟁 대상	법률 판결 요지
미국	우버 운전자 분쟁 (2016.4)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5개 도시	각종 업무수행 비용 지급 소송 캘리포니아 노동위 우버 피고용인 판정
	리프트 분쟁 (2016.6) 미국 뉴욕주 (2015.3)	차량유지비, 약관 개정 등 당사자 간 합의 뉴욕 법원 직원 판결
영국	우버 운전자 분쟁 (2016.7) 런던	최저임금, 휴가비, 각종 업무비 소송 중앙노동법원 근로자성 인정 판결
한국	우버 진출 분쟁 (2014) 배달앱 산업재해 인정 문제 (2017) 쏘카의 타다 도입 사회적 논쟁 중 (2019)	우버 미허가 결정 배달앱 → 택배 업무 판단 산재 적용 택시 운송 업계와 쏘카의 타다 논쟁 중(2019)

2. 플랫폼노동 단체교섭 체결 사례 - 덴마크, 이탈리아 볼로냐/밀라노, 미국 뉴욕

덴마크 플랫폼노동 단협체결 사례(2018.4)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Hilfr.dk) → 2018년 4월 세계최초로 덴마크 노총(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소속의 최대 노동조합인 3F(The Fagligt Fælles Forbund)와 단체협약 체결
힐퍼 플랫폼 등록 플랫폼 노동자 (스페르힐퍼 Super Hilfrs) → 임금, 휴가비, 연금 등 덴마크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 보장. 이는 덴마크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 계획 시행과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 위한 노력 결과

미국 워싱턴주 시에틀 시의회 (2015.12)

우버, 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노동자 노조 결성과 가입 허용 조례(2015.12.14) 통과(<https://m.nocutnews.co.kr/news/4518376>).

6-4. 디지털 시대, 사회적 대응 과제 논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 ① 인공지능(AI)과 기술발전 가치기준은 무엇인가?
 - ② '미래의 일', 향후 우리 직업은 어떤 모습일까?
 - ③ 플랫폼 노동안전 영역은 무엇이 쟁점일까?
 - ④ 플랫폼노동 대응 노동기본권은 어떻게 가능할까?
- 위 4가지 영역별 적극적 대응과 개입 모색은 ?

제도적, 정책적 모색논의들

- ① 비고용 기간 사회적 보호 접근 구체화
- ② 사회적 재생산 위한 소득 안전성과 교육훈련 제공
- ③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 확보
- ④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존중 확보
- ⑤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플랫폼노동 다양한 쟁점들

- ✓ 산업, 기술의 알고리즘 → 러다이트? Vs. 인간중심적 기술?
- ✓ 일자리, 노동권 문제 → 제3의 접근? Vs. 자본 편향적 기술? * 이윤 향유?
- ✓ 사회보험, 안전보건 문제 → 보편 포괄성? Vs. 배제와 차별?

6-5. 플랫폼 노동 대안적 접근 검토 - 기존 접근

첫 번째 접근들 - 종속성, 세금

- ✓ 플랫폼이 고용주, 플랫폼 통해 노동 제공하는 자 → ‘종속관계’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
- ✓ 종속관계 인정, 이들 임금노동자 간주 → 기존 모든 노동법, 사회보장 보호
- (미) 근로자 소송 페덱스, 우버, 리프트
- (프) 사회보험징수 → 2018년 노동법
 - ① 우버는 운송요금을 정하고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우버는 기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③ 우버는 기사가 서비스 제공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 ④ 우버는 기사에게 일정 한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며 기사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 ⑤ 고객평가 점수에 따라 플랫폼 접속권을 제한한다 등

두 번째 접근들 - 준종속성

- ✓ 기존 법률상 독립적이나, 경제적 종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일정한 보호 필요
- ✓ 개인 사업주들에게 종속노동자보다는 알은 수준의 보호 제공 논의
- 「엘-코MRI법」
플랫폼 ‘사회적 책임’ → 2018년 노동법
 - ①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한다.
 - ② 해당 플랫폼에서 일정 한도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는 노동자에게 플랫폼의 비용 부담으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 ③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업적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플랫폼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그 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 ④ 플랫폼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가입하거나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Thanks for your attention

E-mail : sadae1999@hanmail.net
<http://klsi.org>